

바다로 나간 신석기시대 사람들

이진민, 102호 신석기실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실에서 ‘장식과 예술’을 소개하는 진열장을 보면, 오목하게 만들어진 토기 세 조각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배 모양 토제품’으로 1969년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반원형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이 작은 조각들이 배를 본 따 만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동삼동 유적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인 2004년, 신석기시대 연구의 최대 수확이라 불릴 만한 엄청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토제품들의 정체를 확인해줄 획기적인 발굴이 창녕 비봉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풍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한 고고학도에 의해 발견된 유적입니다. 이 우연한 발견은 최고最古·최초最初·최다最多의 신석기시대 유물·유구의 발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물이 차 있는 저습지였기에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비봉리 유적 출토품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통나무 배 두 척이었습니다. 신석기시대 배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비봉리에서 발견된 두 척의 배 가운데 1호는 200년이 된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제작 연대가 기원전 6000년경으로 추정되어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배이기도 합니다.

비봉리 유적에서 발견된 배는 동삼동 유적의 토제품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로써 배를 본 따 만든 것이라는 추측에 좀 더 힘이 실렸고, 수장고에 고이 보관되던 동삼동 유적의 토제품은 전시실의 한쪽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신석기시대에는 구석기시대 또는 청동기시대와는 달리 바다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배와 배 모양 토제품은 바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림1. 배 모양 토제품



그림2. 비봉리유적 나무배 출토 모습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6)

박진일,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아스틀란(하얀 땅) 출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수호신 우이칠로포츠틀리의 예언으로 고향을 떠나 200년 가까이 유랑하던 중 부족의 이름을 메시카로 바꾼 후 14세기 무렵 멕시코 중앙고원 속에 있는 테스코코 호수 안에 있는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의 다른 문명과 비슷하게 아스테카 역시 태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다른 문명과 조금 다른 점은 신들의 희생 덕분에 세상과 태양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인간이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 태양이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스테카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카족이 세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국가가 중심이 되어 호수 주변의 테스코코, 틀라코판과 삼각동맹을 이루어 주변의 도시국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통제의 방식은 전쟁과 공물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아스테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작동원리가 되었습니다.

전시는 아스테카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몰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즉 우주, 자연 환경, 아스테카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그 중심에 있었던 신성구역 그리고 대신전인 템플로 마요르(templo mayor) 순입니다. 기존에 우리에게 알려진 아스테카의 잔혹한 이미지가 다분히 기독교적 정복자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인데 전시는 인신공양으로 대표되는 희생의례 이면에 있는 아스테카 사회의 작동원리와 세계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관람객 개개인이 이 전시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1. 인간의 창조자이자 지하와 새벽의 신 케찰코아틀(깃털달린 뱀, 두 번째 태양)



그림2. 움직임의 태양 토나티우 (다섯 번째 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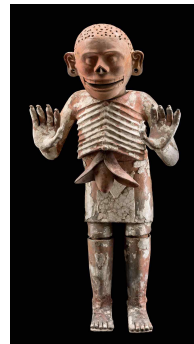


그림3. 지하세계의 신 므틀란테쿠틀리



그림4. 젊은 옥수수 신 실로넨

신라의 금관과 금동관

구문경, 108호 신라실 19:00~19:30

1974년 10월 29일 화요일. 그날 각 신문들 1면에는 경주 98호 고분(황남대총皇南大塚)¹⁾에서 출토된 금관에 대한 기사가 출토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1년 전인 1973년 7월에 경주 155호 고분(천마총天馬塚)²⁾에서 금관이 출토되어 1면을 장식한 바 있어 2년 연속 신라 금관 발굴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관冠은 고대국가의 신분질서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신라에 있어서는 국가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신분제도인 골품제骨品制를 엿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물론 금관은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르게 그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금관과 비슷한 형태의 금동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 금동관은 경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인 대구, 경산, 양산, 그리고 멀리로는 파주와 강릉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구려·백제·신라는 각기 서로 다른 형태의 관을 사용하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머리에 놓인 관이 그가 살아있을 때 사용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것인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 나라만의 독특한 상징들이 집합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삼국시대에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어떻게 금을 이용한 뛰어난 세공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만, 신라는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금 장신구들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 최고의 경지는 바로 금관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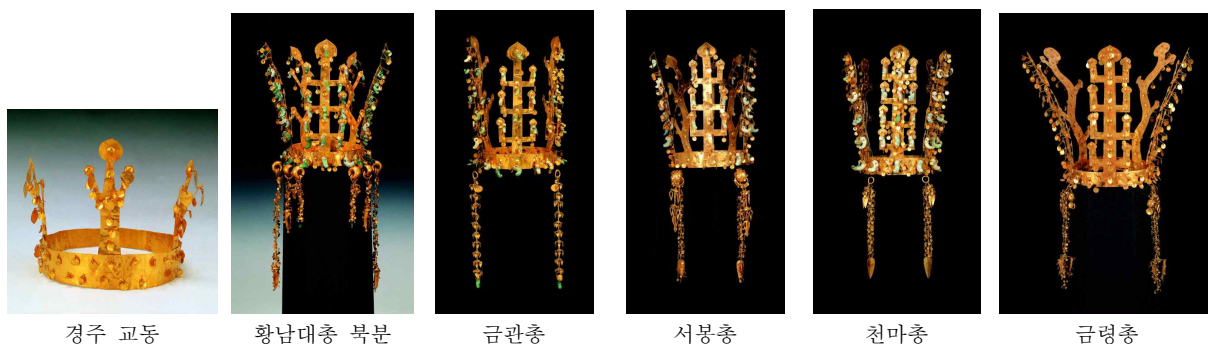


그림1. 신라 금관

1) 경주 98호분이 지금의 “황남대총”으로 이름 붙여진 시기는 신문기사로 볼 때 1976년 8월임.

2) 경주 155호분이 “천마총”으로 이름 붙여진 때는 1974년 10월이며, 그 내용이 신문기사로 알려짐.

고려청자의 다양성

서유리, 303호 청자실 19:00~19:30

고려(918~1392)는 찬란한 공예품을 탄생시키고 향유했던 왕조로, 무엇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의 한 종류인 청자를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10세기 후반경 탄생한 청자는 아름다운 색과 다양한 장식으로 다채로운 한국의 자기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12세기 이후, 강진과 부안의 가마에서 청자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며 비색청자 翡色靑磁와 다양한 상형청자 象形靑磁, 흑과 백의 대비가 뛰어난 상감청자 象嵌靑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청자는 아름다운 색과 다양한 장식으로 다채로운 한국의 자기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송나라 사신 서경徐兢은 1124년 저술한 『고려도경 高麗圖經』에서 “산예출향 역시 비색翡色입니다. 위에는 쭈그리고 있는 사자 모양의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연꽃이 그것을 받치고 있습니다. 여러 기물들 가운데 이 물건만이 가장 정절精絶하고, 그 나머지는 월주越州의 고비색古秘色이나 여주汝州의 신요기新窯器와 대체로 유사하다.” 라고 비색청자와 상형청자를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1. 청자과형병, 높이 22.7cm, 국보, 본관 4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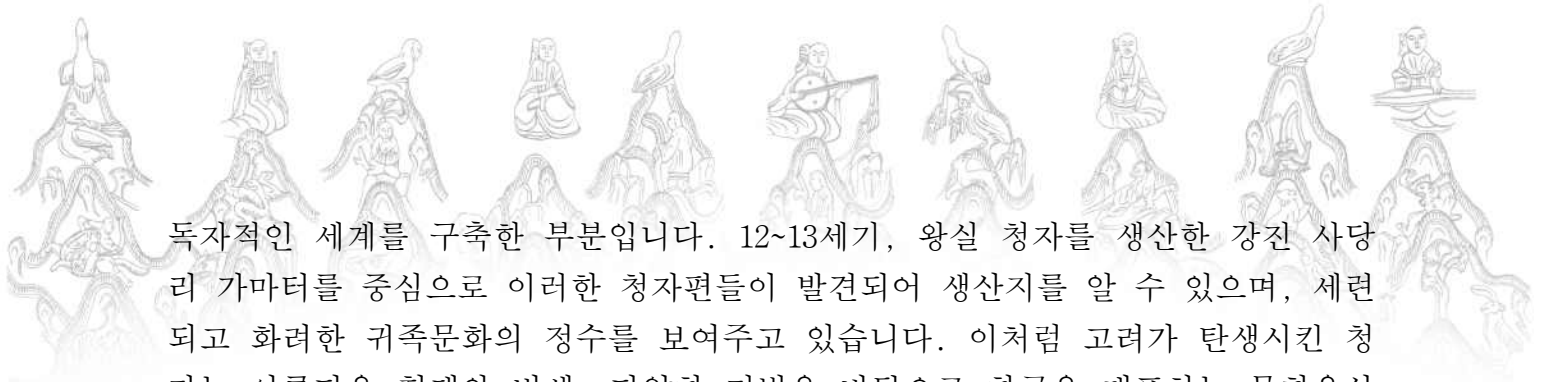


그림2. 청자사자모양향로, 높이 21.2cm, 국보, 개성1



그림3. 청자상감국모란 문과형병, 높이 25.6cm, 국보, 덕수20

고려청자의 꾸밈에는 음각·양각·투각·상형·상감·철화·동화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인들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비취색을 띠는 비색청자를 완성한 것과 도자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연 상감기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특히 상감기법은 세계 도자기 역사상 고려가 이룬 뛰어난 업적인 동시에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부분입니다. 12~13세기, 왕실 청자를 생산한 강진 사당리 가마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청자편들이 발견되어 생산지를 알 수 있으며, 세련되고 화려한 귀족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가 탄생시킨 청자는 아름다운 형태와 비색, 다양한 기법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